제12회 숭대극회 신입생 환영공연

아니, 대감 불가불 가요,
아니면 불가 불가요?

不可不可

원작 : 이 현 화
기획 : 천 승 범
연출 : 황 금 실

격 려 사

총장 **김 치 선**

순수 연극을 지향하며, 꾸준히 예술이라는 거대한 창조를 승화시켜 나가는 숭대극회에 우선 커다란 격려를 보냅니다.

연극에의 참여를 통하여 창조정신이 함양되고, 작품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젊음의 열기라는 이름으로 무대위에서 마음껏 발산하려는 제12회 숭대극회 신입생 환영 공연을 신입생들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이번 작품이 공연됨에 있어 모든 숭실인들과의 교감으로 오랜 역사에 버금가는 참예술의 경지를 함께 나누길 바라며,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격 려 사

(민족문화연구소 이사장) **윤 용 구**

개교 90주년 연연이 흘러온 숭실의 맥속에 연극예술 창조의 험로를 땀으로 수놓는 숭대극회에 격려의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문명의 타성에 잠겨 퇴화해 버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며, 작품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배우면서 보다 참신한 사고로 우리에게 현명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숭대극회의 제12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충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패기로 열렬한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바래지지 않는 의욕과 열정으로 쉬임 없는 연극예술에의 도전을 바랍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권 형 진**

지루하고 답답했던 겨울도 화사한 꽃내음과 함께 어느덧 지나가 버렸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숭대극회에서는 제12회 신입생 환영 공연으로 이 현화作 "불가불가"를 올리게 되었읍니다. 미숙한 저희지만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뛰었읍니다. 50여일 동안 추운무대에서 벌벌떨며 연습해온 Cast 들, 연출,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 기획, 그리고 막이 오르기까지 뒤에서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찬사드립니다.

기획의 변

기획 **천 승 범**
(화공 3)

푸르는 하늘의 싱그러움과 더불어 우리 숭실이 새롭게 맞이한 신입생 들의 모습이 한창 봄의 기운을 발산할 즈음, 우리들은 막이 내리고 난 후의 공허와 허무를 오늘도 가슴 한 구석에 남겨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는 회의와 피땀어린 결실이 어쩜 이것을 의미 하겠지 …….

아침을 위한 正進처럼 우리는 또다시 새벽의 희뿌연 회색 손가락들이 밤으로 스며들어 어두움을 긁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알수없는 끈끈한 무대의 매력에 여전히 사로 잡힌 채…….

끊임없이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작가및 작품연구

이현화씨는 194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뒤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요한을 찾읍니다'가 당선 되어 등단하였다.

그동안 '쉬-쉬-쉬잇' '누구세요' 우리들끼리 만으로 한다' '카덴자', '산씻김', '0, 917' 등을 발표하면서 희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치밀한 기하학적 극구성, 면도날처럼 예리한 대사처리, 시종위기감을 자아내는 미스테릭한 분위기로 인해 독특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정상급 극작가이다.

이런면에서 1987년 서울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한 '불가불가'는 약간 다른 궤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역사를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이고 그 주체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는 시점이나 사람이 바뀌고 또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기 그 시대에 따른 인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렇기에 역사라는 것은 열린 테두리 안에서 '불가불가'의 반복은 불가피한 건지도 모른다.

누구나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의식적인 또는 행태적인 면에서 여전히 과거적인 삶에 집착하여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역사를 인식하는 주체자들로서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대성이라는 의미가운데는 현실성 자체를 객관적으로 중시하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발전적 행위를 중시하는 당위론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에서이다.

이 작품에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동시대성이 갖는 양면성이 단지 역사를 인식하는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갈등의 덩어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얼핏, 역사가운데 처해진 문제적 개인을 무대위에 세워놓은 듯 하지만, 역사적 비극을 초래하는 인간군상들속에서 그들과 융합할 수 없는 내면적인 문제적 개인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에 주안점을 가졌던 것이다.

이 작품은 우리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굴곡이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서사적 표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각 장면 장면의 대비,그로인해 발생하는 충돌이 부각되어,보여 주는 연기가 크게 나타나기가 쉬운 가운데 액자식 기법이 주는 효과를 살려 느끼는 연기를 던져주고자 하였다.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시간의 속성에선 과거와 미래가 제법 버젓해보이지만, 동시대적 의미속에서 존재론적 측면의 문제를 한꺼번에 안을 수 밖에 없음 또한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와 불가가 부딪는 극렬한 상황속에서 삐죽삐죽 고개를 내미는 또하나의 자아, '불가불가'를 향해 무모한 돌격을 시도하는 '나'를 종종보게 되는게 아닐까.

연출의 변

연출 황 금 실(국문 4)

가을 꼬리보다도
코끝이 아리는 세모난 창
너머로 노을이 널렸는데
한두애와 두세애
집짓기 놀이가 무슨
소용이람

이 소리 좀 봐
잠꼬대쑥지가 퍼덕거리는군,
아무려면…….
맴돌다 돌이 된 노래야,
달달거리던 게집애 입술이 고만
먼지 먹고 파닥거리면
그래, 마련된 유리성을 주마
그러며는 노래는
박제가 될꺼다.
돌은
공주가 되어 일인다역을 해낼꺼다.

겨울꼬랑지 만큼이나
가슴이 몽지는 삐뚠 천정
아래로 지랄이 널렸는데
밖에 있던 검지가
神들의 스위치를 내린들
노을은
박제가 될 수 있을까?
지랄은 공주가 되어
일인다역을 할 수 있을까?

1988.
겨울이 가시지 않은 3월
극회실이란 공간에서…….

축

공 연

숭대극회동문회일동

CAST

연출
왕 동 미 (사사4)

배우1
홍 덕 태 (사학2)

배우2
권 형 진 (무역3)

배우3
박 경 근 (전자3)

배우4
손 진 용 (산공2)

배우5
하 승 민 (전산3)

배우6
권 태 수 (경영2)

배우7
이 광 우 (철학2)

배우8
변 갑 수 (독문2)

배우9
노 경 신 (무역2)

배우10
서 현 석 (독문2)

배우11
최 민 구 (화공4)

여배우
최 정 화 (무역2)

P.D
조 영 화 (국문2)

음향
홍 희 정 (불문2)

STAFF

- 무대감독 : 김 선 중 (국문4)
- 진 행 : 박 준 희 (사사2)
- 음 향 : 이 경 희 (사학2)
- 조 명 : 송 근 호 (기계2)
- 분 장 : 백 로 라 (국문2)
- 의 상 : 김 현 순 (독문3)
- 홍 보 : 권 승 혜 (불문1)
- 소 품 : 송 미 경 (독문2)
- 섭 외 : 남 재 현 (철학1)

吐芽映像
ANIMATION & DOCUMENTARY
• Animation Animation Checking
• 16mm Film 및 Video 제작
• 정치 홍보물 • 각종행사 촬영
代表 남 기 창 (철학81')
Tel. 882 - 3229

相'84
Tel. 816 - 1190
그윽한 분위기와 낭만이 있는곳!
후문 정문
숭실 大

파전
닭도리탕 · 도토리묵
낙지볶음 · 식사일절
촌
☎ 813-6235

CAFÉ & Restaurant
로비상스
☎ 814-0625

Pub
Restaurant
MINERVA
미네르바
숭실인을 위한 휴식처!
PHONE : 816-3967

전통중국음식점
연 래 춘
↑봉천동
숭실大정문
↓노량진
Tel.
816 - 2007
812 - 9108

공 연 연 보

回	年 月 日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23년 7 : 7, 2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주관	
	1923년 7 : 28, 29	"[illegible]" [illegible] 주관	
1	1965년 11 :	"[illegible]" [illegible]作	[illegible]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 Wilder	이재주
3	1969년 10 : 10	"[illegible]" [illegible]作	이재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illegible]"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무엘 · 베케트作	[illegible]
7 回 演劇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illegible]" [illegible]作 "[illegible]" 안톤 · 체홉作 "황금단지"(로마극) 플라우투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 · 베케트作	[illegible] [illegible] 한영제 [illegible] [illegible]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숀 · 오케이시作	[illegible]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핀터作	한영제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핀터作 "기도"(초국상) F. 아라발作	[illegible]
12	1974년 5 : 25, 28, 30	"[illegible]"(전5막) A. 밀러作	[illegible]
1	1975년 3 : 10, 11, 12	"[illegible]"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13	1975년 6 : 9, 10, 12, 13	"[illegible]"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illegible]"	[illegible]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ch作	[illegible]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 · 클로드 · 반 · 이탤리作	[illegible]
16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 · 클로드 · 반 · 이탤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 · 쉐퍼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 · 쉐퍼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iman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 · 쉐퍼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illegible]"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21	1979년 6 : 18, 19	"환상 2979" 김영덕作	[illegible]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태석作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illegible]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illegible]" [illegible]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illegible]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26	1982년 6 : 12, 13	"[illegible]" A. 밀러作	[illegible]
27	1982년 10 : 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메디" 피터쉐퍼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illegible]
8	1984년 3 : 8, 9	"[illegible]" N. Holand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illegible]
31	1984년 10 : 11, 12, 13	"[illegible]" John stoltenberg作	[illegible]
32	1985년 5 : 9, 10, 11	"[illegible]" Maxim Gorky	[illegible]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illegible]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 · 과레스키作	[illegible]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릭 · 입센作	[illegible]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 쉐퍼作	[illegible]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illegible]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作 (신입생환영)	박정근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illegible]
37	1987년 9 : 10, 11, 12	"오 해" A. Camus	박정근